

# 베르디 대작 '리골레토' 만난다



광주오페라단의 지난 공연 모습.

<광주오페라단 제공>

“시간 좀 내주세요, 갈 데가 있소~”  
가전제품 CM송으로도 잘 알려진 이 노래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이다. 귀족 공작 ‘만투바’가 군복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부르는 노랫말에 갈피를 잡기 힘든 여심을 담아내 화제가 됐다.

광주오페라단(예술감독 김기준)은 제48회 정기공연 ‘오페라 리골레토’를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주오페라단 창단 41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이기도 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표주자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일락의 왕’을 바탕으로 프란체스코 베르디와 베아베가 연극화한 것. 1851년 초연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며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작품이다.

극중 문재적 인물인 ‘만투바 공작’은 닥치는 대로 여자를 건드리는 호색한이다. 이를 뒤에서 부

**광주오페라단 정기공연**  
4~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빅토르 위고 소설 ‘일락의 왕’ 연극화  
1851년 초연 후 꾸준한 인기

추기는 궁정광대 ‘리골레토’도 만투바 공작에 못지 않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리골레토는 자신의 딸 ‘질다’ 만큼은 만투바 공작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왔다.

어느 날 학생으로 변장한 만투바가 질다를 유혹하면서 극은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리골레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질다가 사랑에 빠지자, 리골레토는 자객을 시켜 공작을 청부살인하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이미 사랑에 빠진 질다는 공작 대신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을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자루에

들어 있는 시인이 만투바가 아니라 자신의 딸임을 안 리골레토는 크게 절망하는데..

작품은 19세기 초 ‘저주’라는 제목으로 돼 있었지만, 귀족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상연금지 명령을 받아 베르디와 베아베가 제목, 배역, 장면 등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오페라의 제목도 리골레토로 변경된 것. 프랑스 소설이 원작이지만 상영이 제한된 탓에 이탈리아 만투바에서 공연이 진행된 이후, 점차 이태리 정통 오페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지휘는 김병무, 연출은 유희문이 맡았다. 리골레토 역에는 정호석, 이하서 등, 질다 역에 박수연, 윤하나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클랑심포니 오케스트라(K.S.O.)’와 ‘익투스 코랄 합창단’도 무대에 올라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 일차별 공연 시간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고립 사회 속 인맥 형성과 활용법

양일옥 작가 ‘휴먼 레버리지’ 발간... 인간관계 해법 소개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알고리즘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점차 더 복잡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인간소외는 더욱 강화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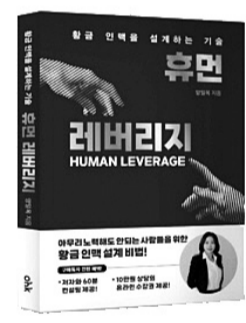
고립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해법의 방안으로 인맥 형성과 활용방법을 모색한 책이 나왔다.

양일옥 작가가 펴낸 ‘휴먼 레버리지’는 갈수록 개인화, 파편화되는 사회 속에서 자기계발을 토대로 인맥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실용서적이다.

저자는 “인간관계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자신의 가치실현을 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책을 썼다”며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는 책에서 인맥을 쌓는 건 타인에게 기대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더욱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인간관계 형성과정을 ‘관찰후 라벨링하기-공감대 형성하기-빛장해제 시키기-공들이기’로 4단계로 분류해 적용할 것을 권한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인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며, 인맥 자원 축적의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처음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내 사람으로 만드는 ‘휴먼 네트워크의 시작’을 위한 휴먼 레버리지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3장과 4장은 각각 ‘파워인맥 구축의 비밀’, ‘휴먼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저자 양일옥은 20대 때 일본, 영국 등에서 10여년의 외국 생활을 하고 귀국 후 자원봉사와 10여년의 교육사업을 했으며 광주시 북구의원으로 8년간 활동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다산의 마음 찾아...생각 따라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다산학 정수 담은 책 2권 펴내



“시를 배운데 있어 그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썩은 땅에서 맑은 샘물을 걸러 내는 것 같고, 법세는 가축나무에서 특이한 향기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평생 노력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과 인간,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알고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구별을 살펴서 짜짜기를 걸러 맑고 참됨이 발현되게 하여야 한다.”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견지했던 시에 대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짜짜기를 걸러 맑고 참됨이 발현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시를 배우는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다.

다산의 저서는 500권이 넘는 만큼 방대한 분량이다. 경학, 즉 철학 관계 저서가 230권이 넘고 경제학 저서도 많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축, 군사,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여기에 다산은 2500수가 넘는 많은 시를 지었다. 예에서 보듯 다산은 조선이라는 시대적 틀에 갇히지 않고 백성의 삶을 깊이 고민한 현실적인 사상가였다.

다산연구소 이사장인 박석무 우석대 석좌교수가 최근 ‘다산의 마음을 찾아’, ‘다산의 생각을 따라’ (협암사) 등 다산학의 정수를 담은 2권의 책을 펴냈다.

이번 책은 50년의 연구, 19년에 걸친 1200회의 연재 글의 결과물로 다산학의 정수를 담았다.

박 이사장은 “평생 다산학 공부에 노력을 기울여 온 나는 번역하고 풀이하는 일을 통해 다산의 학문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에 정성을 바치고 싶었다. 다산학이야말로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이론과 방법을 담은 명실상부한 실학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책은 모두 2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 ‘다산의 마음을 찾아’는 다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와 편지, 나아가 다산의 삶에 집중했는데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조선 후기, 시대 상황이 주요 대상이다. 저자는 “정조와 다산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가족에게 보낸 편지글을 통해 환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다산의 굳은 의지를 펼쳐 보았다”며 “스승으로 삼았던 인물, 교유했던 사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다산의 뜻을 기려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도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2권 ‘다산의 생각을 따라’는 비현실적인 이론에만 치중된 학문보다 실용적인 사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을 고민했던 다산의 면모를 담았다.

한편 무안 출신의 박 이사장은 한중고문 연구소장과 13·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산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산문선’, ‘애절양’, ‘다산은실선집’ 등 다수의 다산 관련 책을 펴냈다. 현재 광주일보 월요광장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강사 ‘학교예술교육’ 실기 교육



광주서구문화원 연수 성료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동구인문학당에서 예술강사의 역량강화와 학교 관계자의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한 ‘ART LOOKBOOK 학교 예술교육 연수(시진)’가 마무리됐다.

지난 27~28일까지 열린 이번 연수에는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역량강화와 실기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27일에는 김혜일 문화공공체 아우름 대표의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의와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의 ‘협업, 어떻게 해야 하나’, 주소연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회장의 ‘판소리의 이해와 한 대목 배우기’ 등이 이루어졌다.

28일에는 이숙영 조선대 교수와 권혜인 전북대 강사의 ‘무용교육의 흐름과 변화’, 윤종금 유엔미술관 대표와 윤애실 윤스랩 대표의 ‘화석시대’, 이허련 퓨전국악그룹 에다 대표의 ‘장단과 민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0-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